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고 시원

제목 : 축구

아빠, 나, 동생, 동생친구 형준이, 그리고 형준이
 이 아빠 이렇게 다섯명이 축구를
 했다. 아빠, 동생, 그리고 형준이가
 한팀이었고 나와 형준이 아빠가
 한팀이었다. 형준이 아빠는 나를
 많이 도와 주셨다. 하지만, 아쉽게도
 동점이었다. 그렇지만 지는 것 보다는
 낫다, 공평하기 때문이었다. 슈~골!
 "야호!" 나와 형준이 아빠는 손발이 척척
 맞았다. 그렇지만 우리 아빠와 동생들도
 만만치 않았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
 공격수가 되었다. 가끔 수비도 했다. "후~"
 진짜 진짜 지치고 힘들었지만, 즐거웠다.
 공격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, 나한테는
 수비가 더 맞는 것 같다. 딸이
 홈수가 날 정도로 많이 홈했다. 집에
 들어와서 샤워를 했다. 상쾌했다.
 축구를 매일 하면 좋겠다.